

복식사 연구에서의 타 학문과의 연계성 현황

정미진* · 정홍숙

승의여자대학 패션디자인학과 강사*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복식지에 게재된 복식사 관련 논문들의 학제적 접근을 검토·분석하여 복식사 연구의 질을 높이는 토대를 다지고 미래의 복식사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여 보는데 있다.

이 분석을 위해 1980년부터 2001년 3월 사이에 복식지에 실린 서양복식사 관련 논문 124편이 자료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양복식사의 연구 주제는 어떠한 인접 학문 분야와 어떻게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계된 가장 비중 있는 학문 분야 다섯가지가 나타났다. 미술사, 인류학, 대중 음악, 사회학, 인류학이 그것이다.

둘째, 서양복식사에서 학제적 연구의 비중. 위치는 어디인지에 관해서는 서양복식사에 관한 복식지에 실린 논문 총 124편에서 72개가 확실한 학제적인 논문으로 나타났고 52개는 좀더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백분율로 나타냈을 때 학제적인 것은 58%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42%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양복식사에 있어서 학제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요성과 비중이 크게 작용해 왔음을 동시에 파악 할 수 있다.

셋째, 서양복식사의 학제적 연구는 어떤 분야들이 있으며 어떤 분야가 주로 주도하고 있는가에서는 총 72개의 학제적 논문 중 39개가 미술사로 나타났고 10개가 인류학, 7개가 사회학, 6개가 음악, 6개가 고고학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가 4개이다.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미술사가 54%로 압도적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두번째는 인류학으로 14%, 세번째는 대중음악과 고고학으로 각 8%, 기타가 6%이다. 따라서 학제적 연구의 모태가 되는 분야중 가장 우세한 분야가 미술사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서양 복식사를 시대별로 나누었을 때 어

떤 시대에 관한 논문이 학제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고학이 60%, 인류학이 40%로 고대 시대의 10편의 논문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났고 중세에서는 4편의 논문 중 미술사가 75%, 인류학이 25%로 총 100%를 차지했고 근세에서는 4편의 논문 중 미술사 75%, 인류학 25%로 중세와 같은 결과가 나왔으며 근대에서는 총 6편의 논문 중 미술사가 67%, 인류학이 16.6%, 그리고 기타가 16.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대에서는 총 48편의 논문 중 미술사가 51.2%, 음악이 13.6%, 사회학이 11.6%, 인류학이 6.8%, 기타가 6.8%로 다양한 분포가 보여진다.

우리나라 서양복식사의 연구는 그 영역이 확대되는 실정에 비해 학제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 그 다양성이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서양복식사를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로 시기로 나누어 보았을 때 학제적 연구가 현대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그 분야도 다양하지 않다. 시대가 급변하고 시대의 요구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보다 다양한 학제적 접근 모색이 절실하다 하겠으며 이는 복식사 연구의 질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복식사 연구가 그 학제적 연구에 있어서 현대에 관한 것에 치중되지 말고 다른 시대에도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연계된 학문 분야도 복잡한 시대의 양상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로 시도·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복식사 연구 주제·방법론에 대한 분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 많이 연구되어져서 인접한 분야와 구별되는 고유한 분류 기준이 확보되기를 바란다.